



우리의
家章

青松沈氏宗報

發行人：沈斗燮
編輯人：沈載烈(輔)
서울市 中區 五壯洞 14-10
電話：(02)2267-7857
(02)2263-7897
FAX：(02)2269-7755

非賣品 1996. 1. 3 등록번호 서울 라 - 549호

홈페이지 | www.csshim.or.kr

13世祖 贈大司憲 行應教公(휘:東龜) 墓碣銘 - ①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산 8



▶晴峰公 神道碑

청봉(晴峰) 심공이 갑오(1594)년에 태어나서 경자(1660)년에 죽었으니 생전에 말하기를「나의 아버지의 원한을 풀어드리지 못하고 죽으면 눈을 감지 못 한다」고 하더니 과연 그렇게 되었다. 아아 인간에게는 거짓이 용납될지언정 오직 하늘은 거짓이 없다. 누가 말하기를 무엇이 하늘이냐고, 이에 효도가 곧 天理인데 하물며 인생이 욕심 때문에 인욕으로써 천리를 무시하고 되는 대로 살다가 죽는 것이리오. 공박하면 근본으로 되돌리는 까닭에 증자(曾子)께서 말씀이란 본래부터 착한 것이라고 훈계하셨으니 항차 이미 죽고서도 거짓이 용납되겠느냐? 이것이 하늘의 이치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공의 이름은 동구(東龜)이고 자는 문징(文徵)이니 靑松人이다. 시조인 홍부(洪孚)는 고려의 위위승(衛尉丞)이고 조선 때 이름 덕부(德符)와 온(溫)과 회(澮)는 모두 영의정이므로 묘소에는 경양(慶仰)¹⁾이 밝고 빛났으니 타족으로서는 더욱 바라보지도 못할 일이다. 판교(判校)를 지낸 달원(達源)은 기묘사화 당시 유명인이니 이 분이 공의 고조부이고 그의 아들 자(鎡)는 첨정이고 그 아들 우정(友正)은 목사이다. 이 분이 증(諱)을 낳으니 공의 아버지인 예조판서이고 직제학 홍종록(洪宗祿)의 딸과 혼인하여 공을 낳

니 특이하게 뻐어났다.

이를 갈 나이에 벌써 글을 붙여 짓고 약관(弱冠)²⁾에 빛나는 소문이 무성하였다. 오봉 이호민공(五峯 李好閔公)과 만취 오역령(晩翠 吳億齡)公께서 인품이 심히 고매하다고 말하였다. 乙卯(1615)년에 진사가 되고 己未(1619)년에 알성급제(謁聖及第) 하였으나 혼당(昏黨)³⁾의 불공평으로 버림 받았다.

인조반정 뒤 성균유생으로 이름이 드러나서 추천으로 태능참봉이 되고 甲子(1624)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에 예속되고 주서(注書)를 거쳐 한림(翰林)이 되고 설서(說書)를 경유하고 전적(典籍)에 승진되었다. 이로부터 40여 관직을 역임했는데 삼사(三司)⁴⁾에 많이 있었고 강원(講院)에서 춘추관 지제교(知製敎)를 겸했다. 사간원에 있을 때 이준(李俊)이 당시의 폐단을 진언하자 이명준(李命俊)의 정사에 관한 논란이 이상하게 심중하여 임금께서 격노하고 대각(臺閣)⁵⁾이 한때 공박해졌다.

공이 극력히 진정시키느라고 한때 간쟁(諫爭)⁶⁾이 있었으나 그 풍채가 고상하였다. 옥당(玉堂)⁷⁾에 있을 때도 동료들과 더불어 비례(非禮)를 숭상한다고 추궁하다가 임금께서 진노하여 구속하도록 하명하고 멀리 귀양 보내도록 하

였으나 또한 삼사(三司)에서 다투어 반대하여 석방되었다. 이 때 판서께서 공에게 요양하도록 하여 안변(安邊)으로 가게 되었는데 들째형인 都正께서 마침 회양(淮陽)군수로 제수 되었으니 서로 바라보이는 지역인데 공이 수찬(修撰)으로서 휴가를 얻어 그곳으로 옮겨가서 왕래가 흰하게 빛이 나니 북방인들이 영화롭게 여겼다.

壬申(1632)년에 경기도 都事가 되었는데 명나라의 요인 정룡(程龍)이 이때 부총(副摠)으로 한성에 주둔하니 서로 더불어 수작하며 공을 영민하고 기묘하게 여겨서 무릎을 치며 탄복하고 칭찬하며 참된 선비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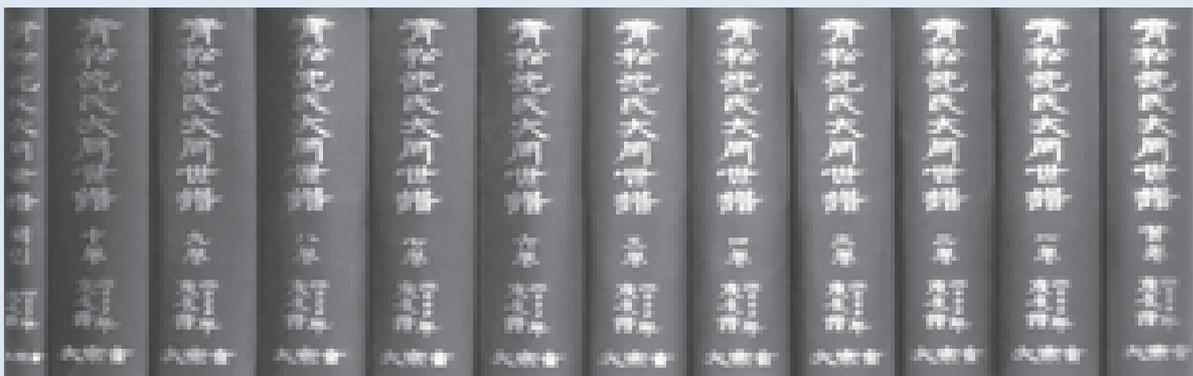
甲戌(1634)년에 두 관직을 역임하고 헌납(獻納)이 되었다가 성지(聖旨)를 거슬러 청하현감으로 강직되었는데 조용하고 청직하게 다스리며 유생들에게 학업을 장려하고 임금과 아버지를 연모하여 한결같이 시로 표현하고 조금도 불우한 감정이 없었다. 이때 양전사(量田使)⁸⁾가 부세를 까다롭고 포악하게 책정함에 공이 바로 대놓고 백성에게 재앙이 된다 하니 양전사는 비록 분하고 원만스러웠으나 별 수 없었고 백성들만 도움을 받았다. 삼년이 지나 임기가 끝나니 백성들이 비석을 세워 송덕(頌德)⁹⁾하였다.

丙子(1636)년에 仁祖께서 남한산성에 입어했을 때 일이 급작스럽게 일어나서 미처 어가를 호종하지 못했고 공은 강도(江都)¹⁰⁾로 宗社를 삼아서 어려운 관문으로 옮겨든즉 곧바로 강화가 함락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여 연신(筵臣)의 말로써 용서받았다. 이후로는 三司에서 떠나지 아니했고 일찍이 호남지방을 염탐하고 해묵은 폐단을 물리칠 방도를 아뢰고 또한 연석(筵席)에서 제갈량(諸葛亮)의 공부 일체(宮府一體)¹¹⁾와 장구성(張九成)의 위태할 때는 안전한 방도를 생각하라는 등 설을 송강(誦講)¹²⁾하며 경계할 것을 권하여 임금께서 표정을 지으시며 경청하셨다.

戊寅(1638)년 가을에 남이공(南以公)이 전형관이 되어 신진을 뽑아 들일 때 응시 경쟁자들이 모두 한통속이 되어 먼저 시비부터 들추어 사람을 시켜 공을 헐뜯었으니 공이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현재 우리 종중을 위하여 절개를 지키는 사람이 유독 김청음(金淸陰) 정동계(鄭棟溪) 한 두 분 뿐인데 이제 또 이 사람들에게 죄를 씌우게 되면 역사

〈2면에 계속〉

大同世譜(庚辰譜) 申請案内



2002년도에 발간·배포한 대동세보(경진보)를 아직까지 모시지 못한 집안에서는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 12권(수권, 자손록 10권, 색인 1권)

◆ 보급가격 : 22만원(별도구입시 수권 : 40,000원)

◆ 송금구좌 : 농협 084-01-193626 (청송심씨대중회)

※ 대금을 송금하신 후 대중회(02-2267-7857, 팩스 : 02-2269-7755)에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즉시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 대동세보 편집자료 제출시 족보예약금을 납입하고 아직 잔금을 내지 않아 받아보지 못한 분들은 '청송심씨대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csshim.or.kr)에 명단이 게재되어 있으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동세보 수권 속편(靑松沈氏世考選, 祭享笏記, 宗보축쇄판, 手帖, 뺏지 포함) : 100,000원

『책자 강매』 주의

대중회를 사칭하면서 책자 구입을 강요하는 전화가 많습니다. 책자를 보내오면 대금을 송금하지 말고 즉시 반송하시기 바라며, 다른분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중회에서는

대동세보(경진보 : 22만원)와 대동세보 수권속편(10만원) 외는 보급하는 책자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에 허물을 저지름까 두려우며 또한 후 세상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겠습니까.』

■ 주(註)

- ① 경양(慶仰) : 경사스럽게 우러러 봄.
- ② 약관(弱冠) : 20세.
- ③ 혼당(昏黨) : 혼암한 무리. 당쟁 때 상대 당을 깎아서 한 말.

- ④ 삼사(三司) :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을 합쳐 부르던 이름.
- ⑤ 대각(臺閣) : 청치를 행하는 관청. 고제로써 사헌부 사간원을 아울러 이르던 말.
- ⑥ 간쟁(諫爭) : 간하는 다툼. 간언이 서로 옳다고 주장하여 싸움.
- ⑦ 옥당(玉堂) : 홍문관의 별칭.
- ⑧ 양전사(量田使) : 전답의 수확량을 조사 결정하는 관리

- ⑨ 송덕(頌德) : 덕망을 칭송함.
- ⑩ 강도(江都) : 지금 강화도의 강화읍 병난 때 흔히 이곳으로 파천하여 임시도읍을 삼았다.
- ⑪ 궁부일체(宮府一體) : 궁궐의 부종이 한 몸이라는 뜻. 즉 난리가 나면 궁중과 여항이 함께 구제되어야 한다는 뜻.
- ⑫ 송강(誦講) : 위우고 강독함.

〈다음호에 계속〉

青松遺蹟淨化事業에 관한 通文

※본 통문은 정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국 종인에게 협찬을 구하는 내용으로 청송보(大宗會) 제14호에 게재되었던 것이며, 청송유적에 대한 내력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沈門은 그 이름도 거룩한 청송을 발상지로 하여 근 7백년 동안에 무한한 발전과 번창을 거듭하여 15만의 거족(巨族)을 형성하였으며 세세로 명공거경(名公巨卿)이 배출되어 국가민족에 공헌하는 동안 13정승이 계시는 중에서도 3대정승과 형제정승의 명문이 되었음은 세인이 선망(羨望)하는 바이고 근 200여명의 名祖上께서는 영예로운 대과급제로 고관대작의 중책을 맡아 君王을 보필하여 국태민안에 기여한 공덕이 누적(累積)되어 삼한갑족(三韓甲族)으로 거대한 문벌(門閥)이 이룩되었다. 특히 소헌 인순 단의왕후(昭憲 仁順 端懿王后) 외에 열 분의 외예출신왕후(外裔出身王后)가 계심은 오문(吾門)의 찬란한 영광이라 하겠는바 이는 보광산(普光山)에 모셔계시는 시조문림랑 청기군(始祖文林郎 靑己君)의 후광이며 음덕이라 할 것이다.

이에 발상지 청송과 유적에 관하여 고찰해 보건대 청송은 본시 청부(靑阜) 고을이었으나 1418년(世宗元) 9월 26일에 조정에서 소헌왕후의 外鄉이라 하여 청부현에 진보현을 합쳐서 청보군(靑寶郡)으로 승격시키는 동시에 지청보군사(知靑寶郡事)를 배치하니 군민이 열광적으로 환희하며 王后 시조묘소의 음덕이라 칭송하며 보광산(普光山)을 명산대천의 호국지신(護國之神)으로 받들고 춘추로 名山大川祭를 모시게 되었다.

그 후 1424년(세종 5)에는 松生縣을 합쳐서 靑松郡으로 개칭하였으며 1428년(세종 10)에는 지청송군사 허담(知靑松軍事 許澹) 공께서 홍수가 나가거나 적설(積雪)이 되면 보광산에서 명산대천제가 불가능하게 된 고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망배(望拜)로서 향사를 받들기 위하여 동헌(東軒) 옆에 누각(樓閣)을 창건하였고 다음해 정월 말에는 경상도관찰사 홍여방(洪汝方)이 누각의 落成宴에 참석하여 “山水가 신묘(神妙)하면

상서(祥瑞)로움이 있는 법이요 조상에서 적덕하면 경사가 많은 법이다. 문하시중 청성백의 先世文林郎께서 요산요수(樂山樂水) 하시되 힘차고 수려함을 분별하셨고, 우리 강토에 仁厚의 씨를 심으셔서 그 근본을 배양하시고 그 정령(精靈)을 힘써 기르셨으니 왕비가 탄생하시고 왕후께서는 두 공주와 5王子(세종 11년)을 낳으셔서 금지옥엽(金枝玉葉)이 번창하여 우리 왕후를 굳히게 하셨으니 億萬歲 끝없는 慶福을 누리리라. 이 누각에 올라 문림랑공의 묘소를 바라보니 우러러 찬미하지 않을 수 없는 고로 그 이름을 찬경(讚慶)이라 하노라”라고 창건기를 지음에 따라 찬경루(讚慶樓)라 이름하게 된바 이는 우리 가문의 명예롭고 유서 깊은 문화재적 유적이라 할 것이다.

찬경루는 건축규모가 웅대(雄大)하여 16년간 2층 누각으로 창건 된지 552년이 되는데 1632년에 청송읍의 대화재시 소실된 것을 한광근부사(韓光近府使)에 의하여 중건(重建)되었고, 1687년에는 이백중(李白宗)부사가 중수(重修)한 후 송우암(宋尤庵) 선생의 重修後記가 게시(揭示) 되었으며, 누각현판은 당초 安平大君이 11세 때 쓰신 글씨였으나 화재시 소실되고 지금 전래되고 있는 현판(縣板)은 당시의 명필 한규진(韓圭鎭) 선생의 휘호(揮毫)로 송백강릉(松栢崗陵)이라는 현판과 더불어 찬연(燦然)히 빛나고 있다.

만세루(萬歲樓)는 시조묘하의 보광사 앞뜰에 五間 겹집 2층 누각으로 웅대함이 찬경루에 버금가는 문화재적 유적이며 추모재(追慕齋)와 더불어 崇祖의 전당이 되고 있다. 누각 밑에는 대한불갈(大旱不渴)의 정호(井戶)가 있으니 裴登堧(裴登堧)인 시조묘에 기름샘 역할을 하고 있어서 세인들이 名墓라고 호칭되고 있다. 누각은 中宗초에 족보제도가 도입 된지 1545년에 세보(世譜)가 초간 되면서부터 방치상태의 조상

묘소를 추심(推尋)하기 시작하고 묘사문제가 거론된 明宗년대에 11년간 정승으로 계셨던 충혜공 휘 연원(忠惠公 諱 連源)께서 창건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 1584년(宣祖 17)부터 동인의 득세로 인하여 보광산소에 대한 나라의 은총(恩寵)도 자연히 소홀(疎忽)해 집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이에 漢城門中에서는 산소의 수호관리를 보완키 위하여 1608년(宣祖 14)에 악은공의 3대손 필윤공(弼倫公)을 초대 유사로 선임파견 하였으며 그 아드님 학령공(鶴齡公)은 조정에서 主簿로 재임시 만세루현판과 시문액자(詩文額字)를 누각에 게시(揭示)하였다.

그 후 병자호란 등으로 인하여 수호관리가 침체상태(浸滯狀態)에 빠졌다가 1720년(肅宗 40)에 지산상공(止山相公)께서 균전사(均田使) 시절 청송에 파견되었을 때에 호장(戶長)으로 하여금 도호부로부터 추가 계량일결(追加量一結) 남짓의 둔토(屯土)에서 랑외수세(量外收稅)로 문림랑공의 묘사(墓祀)를 사절사(四節祀)로 받들게 조치함으로써 우리 가문에서의 묘전향사가 처음 시작되었으며 다음 해에 성지공(誠之公)께서 청송부사로 부임후 일결팔십북(一結八十卜)의 위토가 사패(賜牌)되었고 1726년(英祖 2) 16세조 봉휘(鳳輝)공께서 청송부사 재임중 묘전에 향로석을 신설하고 보광사국내의 둔토를 개량해서 일결칠십북(一結七十卜)의 위토를 더 마련해서 中臺山 所用 祭田으로 책정하면서 제기를 완비하여 戶長에게 주어 향사에 불결함이 없도록 조치(措處)하시니 호장이 4절사를 받들 때 적설(積雪)이 되면 만세루에서 홍수가 나면 찬경루에서 망배향사를 받들게 되었다.

1740년 부사공 봉휘(鳳輝)의 아드님 성희(聖希)공께서 경상도 관찰사로 재임시에 생석(牲石)을 개비해 드렸으며 보광산소와 중대산소에 대한 사적을 1776년 9월에 강행하여 후세에 전하였다. 1803년(純祖 3)에 18세조 공저(公著)께서 영천군수에 재임중 비갈(碑碣)을 개제해 드리고 1832년에는보광사와 대전사에 完文을 발급하여 잡역의 면제(免除)로 두 산소의 수호를 전담케 하였다. 1856년(철종 7)에는 울산부사 원열(遠悅)공과 경상좌도절도사 환영(煥永)공

및 山下宗人 기일(基一)씨의 출연으로 만세루를 중수하여 명실상부한 소유권을 행사하였다.

1894년 갑오경장(甲午更張) 후 부터는 중대산소와 보광산소에 대한 香火와 수호 절차가 관주관(官主管)에서 자손주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사절사는 춘추절사로 줄어들고 수호는 문중에서 전담케 되었으며 1921년에는 산하종인 호택(曉澤)씨의 주관하에 시조묘소의 사초와 내외계(內外階) 보축(補築) 및 익석망주석(翼石望柱石)의 설치와 판돈녕부사 石村 尹用求선생의 휘호(揮毫)로 된 비갈이 건립 되었으나 裴登堧(裴登堧)인 시조 묘역내의 묘갈은 풍수지리 지설(風水地理之說)에 배치(背馳)된다는 중론에 의하여 작년 봄에 묘계하(墓階下)로 이전되었으며 讚慶萬歲兩樓는 그동안 수차 보수해 오다가 1986년에는 도괴상태(倒壞狀態)에 직면한 것을 전국적인 宗人贊助로 중수되었다.

연이어 십여년이 경과하는 동안 누수가 되고 단청(丹青)이 퇴색(褪色)되어 삼한갑족임을 자부하는 우리 심문의 상징적인 유산이며 문화재적 유산이 훼손(毀損)되고 있는데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주왕산과 청송약수와 더불어 시조묘와 양대루각을 관광차 탐방하는 인사가 격증(激增)하는 실정에 비추어 전통적인 가문의 명예를 결코 유적(遺蹟)의 정화가 시급히 요청되기 때문에 9월 28일에 개최된 이사회에 이를 상징하여 속의(熟議)하여 전국적이며 거족적인 행사로 정화하기로 결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중대산소와 보광산소의 조경(造景)과 양대루각의 보수단청은 물론 임야와 위토의 대중회명의 확보 등 정화사업을 추진코자 하오니 강호첨종(江湖僉宗)께서는 심양(深諒)하시와 송조이념으로 응분의 협찬을 베풀어 주심을 천만기원하나다.

1980년 11월 2일
靑松遺蹟淨化事業推進會

※本文은 사실과 다른 기사가 일부 있으나, 기위 靑松報에 있는 記事 내용대로記載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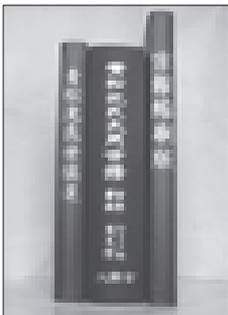
대동세보 수권속편(외 4종) 신청안내

구 분	페이지	가 격	신청부수
1. 대동세보 수권(속편)	1,134	50,000원	()권
2. 청송심씨세고선(한시집)	448	30,000원	()권
3. 종보축쇄판(1-50회)	400	20,000원	()권
4. 제향흘기(휴대용)	30	3,000원	()권
5. 종사수첩(휴대용)	120	3,000원	()권
6. 뺏 지		1,000원	()개

▶ 1, 2, 3 세권을 일시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4, 5, 6 세가지 물품을 무상으로 드립니다.

※ 수령인 주소 및 송금내역

과 명	이 름	집 전 화	
		휴 대 폰	
	주 소		우 편 번 호
송금일자	송 금 인	금 액	송 금 은 행
			()은행 ()지점



수권속편 질 단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 1질 단위는 발송비 없음.
- ◆ 질단위 외에는 발송비 3,000원을 대금에 합산하여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 주소는 번지와 동·호수까지 자세하게 기재, 집전화·휴대전화를 꼭 기재요함.
- ◆ 송금인이 본인인 아니면 반드시 송금인의 이름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보 내 실 곳 ◀

우편번호 100-310 서울 중구 오장동 14-10(찬경회관)
TEL : 02)2267-7857, 2263-7897 FAX : 02)2269-7755
* 송금구좌 농협 084-01-193626(청송심씨대중회)

심훈(沈熏)의 필경사(筆耕畝)를 찾아서 - ①



심 훈

당진읍에서 심훈의 필경사까지는 약18km가 된다.

읍을 나와 한참을 달리니 도로 좌우로 펼쳐진 잘 整地된 농지들이 끝 갈줄 모르게 멀리까지 퍼져있다. 날씨는 초봄처럼 따사로운데 가을것이가 끝난 들판에는 사람하나 보이지 않아 쓸쓸하다 못해 적막하기 까지한다. 구

불구불한 소로길로 들어서 한참을 가다보니 다시 큰길이 나온다. 도로양편에는 큼직큼직한 건물이 줄지어 늘어서있고 길양쪽으로는 30이내 되어보이는 대형 트럭들이 즐비하게 늘어서있어 이곳이 바로 대 공업단지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멀리보이는 아산만을 옆으로하고 다시 좁은길로 들어서 한참을 달리다가 차가 멈춘 곳에서 앞을 바라보니 사진으로만 보던 필경사가 눈에 들어온다. 주위에는 높은산 하나 없는 들이지만 어쩐지 오지에 들어선 것처럼 쓸쓸 하기만하다.

나는 곧바로 필경사의 우측에있는 문화관으로 들어가 해설사로부터 필경사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먼저 안내된 곳이 바로 영상실이다. 20평쯤이나 될가한 영상실 가운데로는 의자들이 줄을 지어 놓여있고 좌우 벽쪽으로 설치된 책장에는 그간에 심훈선생이 저작한 책들이 하나 하나 보기 좋게 정리되어 있었다. 제일 앞쪽으로 심훈 선생의 대표작인 상록수를 시작으로 장편 “불사조” “동방의 애인” “영원의 미소” “직녀성” 등이 있고, 시에는 “그날이오면” “黃公의 최후” “아시” 등이 차례차례 정리되어 있었으며 또 한편으로는 1930년대 당시의 신문에 연재되었던 작품이며 심훈을 대서특필한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의 신문들이 줄지어 있고 끝으로 심훈선생이 교정을 보았다는 친필원고가 색이 바랜 채 원형 그대로 비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슴이 찡해오는 것을 가늠길이 없었다. 이것이 당시의 작가에 대한 흠모이며 일가 어른에 대한 존경심이라.

나는 눈이 어려오는것 같은 적적한 심경을 달래며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심훈의 일대기를 그린 영상물에 젖어들었다. 불과 36년밖에 안되는 그 평생에 그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했던 운명이 너무 비정한 마음이 든다. 따지고 보면

그리 멀지 않은 세월! 나의 일생에 단 5년 밖에 안되지만 그래도 한때 내가 심훈선생과 한 하늘아래에서 살았었다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영광스럽고 흐뭇한 생각이 든다.

선생은 1901년 지금의 서울 노랑진에서 태어나 15세에 교동보통학교를 나와 경성고등학교(지금의 경기고)에 입학, 17세에 왕족 이해영과 결혼하였는데 이때 까지만 해도 선생의 앞날이 평탄한 듯 하였다. 영상은 계속 돌아가고, 세월은 흘러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여러 친구들과 함께 격렬하게 항일운동을 하였는데 이것이 발미가 되어 체포되고 6개월간의 옥고를 치르게 된다.

출소를 하게 된 심훈선생은 보다 더큰 꿈을 이루기위해 다니던 학교를 중퇴하고 중국으로 망명하여 북경, 상해,



필경사(筆耕畝) - 근래 원형대로 복구

남경을 거치면서 당시의 독립운동가였던 이회영, 이시영, 이동녕등의 지사들과 더불어 일들을 함께 도모하게 되었다. 그러던중 아직은 좀 더 식견을 닦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22세 되던 해 항주의 “之江대학교” 국문학부에 입학하게 되었으나 여러 일들이 여의치 않아 다시 학교를 중퇴하고 귀국하고 말았다. 귀국한 후에 선생은 동아일보, 조선일보에 차례로 입사하여 기자로 활동을 하며 학예부장을 역임하였다.

24세 들어 모든 것을 중단하고 본격적인 작품활동을 하게 되었고 영화에도 뜻을 두고 일을 하였으나 작품이 민족주의 색채가 너무 강하다는 이유로 번번이 탄압하고 제재를 가하니 도저히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다. 이에 선생은 서울에서의 활동을 마감하고 고향인 당진군 송학면 부곡

리로 내려와 다시 작품 활동에만 전념하게 되었다.

몇년 후 살고 있는 집 근처에 필경사(筆耕畝 : 붓으로 밭을 간다는 뜻)를 짓고 그 많은 작품들을 발표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도 선생의 대표작이던 “상록수”를 발표하게 되었다. 1935년 동아일보의 현상공모 작품으로 당선이 되어 영화를 기획하던 중 또다시 일제의 탄압으로 좌절되고 말았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筆耕畝”란 이름은 1930년 시(詩) <그날이오면>을 제목으로 하여 시집을 출간하려다 일제의 검열에 걸려 출간이 좌절되는 시련을 겪게 되는데 그 시집 중에 있는 “필경”이란 시의 제목에서 따온 것이다. 잠시 그내용을 살펴보면

《筆耕》

우리의 붓끝은 날마다 흰종이 위를 갈(耕)며 나간다.
한 자루의 붓, 그것은 우리의 쟁기요 유일한 연장이다.
거치른 산기슭에 한 이랑의 火田을 일러면
돌부리와 나무 등결에 호미 끝이 부러지듯이
아아 우리의 꾀꿇한 붓대가 몇 번이나 꺾였었던고?
(이하 생략)

심훈은 영화의 기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하는 수 없이 “상록수”의 책자를 출판하기위해 상경하였다가 그해에 창궐하던 장티프스에 감염되어 치료도 소용없이 한 많은 한평생을 뒤로 한 채 홀홀이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으니 슬프다! 이때가 36세가되던 1936년 9월 16일이다. 선생은 항일시인이요 소설가로서 계몽문학의 선구자였으며 애국지사이기도 했던 젊은 청년으로 비명횡사를 하였으니 참으로 세상이 너무도 야속하기만 하다. 선생이 떠난 후 필경사는 비어 있다가 목사인 둘째 형이 예배당으로 운영 중 6,25사변이 일어나 목사는 남북되었고 그의 부인 권유희가 내려와 51년부터 20년간이나 피난민을 중심으로 예배를 보았으며 1970년 장조카인 심재영이 필경사를 매수하여 관리하다가 지금은 郡에 기증되어 군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곳 필경사에서 예배를 보던 교인들을 대상으로 그 근처에 새로히 교회를 지었으니 이교회가 바로 『상록수교회』요 그옆의 『상록초등학교』는 1930년 당시 아학당이던 것을 선생이 100원을 투자하여 상록학원으로 신축하였고 1958년에 한진국민학교가 되었다가 지금은 선생의 뜻을 기리며 『상록초등학교』로 개명하였다. 이렇게 이 상록수란 이름이 이곳 저곳에 수없이 나오고 있으니 이제 그에관한 내용을 살펴보고 자한다. <다음호에 계속>

재 열 - 11 -

건강 장수 7가지 비결

심윤도(상지대 명예교수)

최근 들어 나이 지긋한 분들의 모임에 갈 때 마다 듣게 되는 이야기가 있다. 9988234 즉 99세까지 팔팔하게 살고 이를 만 앓다가 사흘 되는 날 죽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란 뜻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처럼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지 못한다. 암, 치매, 당뇨 등으로 재산을 다 탕진하고 자식들 잔뜩 고생 시킨 뒤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많다.

일평생 욕심 한 번 부리지 않고 성실하게 지냈으나 질병과 사고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는 경우는 더욱 안타깝다. 그래서 ‘고통 없이 세상을 떠나게 해 달라’고 기도드리는 이들이 늘고 있고, 품위 있는 죽음을 연구하는 학회도 생겼다. 편안하게 잘 죽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 품위 있고 고상하게 늙어가는 일이다. 직위나 돈이 노년의 품위를 보장해 주는 것은 물론 아니다.

누릴 만큼 누렸으나 노후(老醜)에서 벗

어나지 못하는 이가 있는 반면, 과거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무욕(無慾)과 깔끔한 자기관리로 보기만 해도 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이가 있다.

세상 모든 이치가 그렇듯, “건강 장수 7가지 비결”을 위해서 나름대로의 투자와 훈련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각종 모임을 통해 전파되고 있는 “건강 장수 7가지 비결”을 참고 할만하다. 노년의 삶을 업그레이드 하는 청량음료 같은 지혜라는 의미에서 “세븐 업(7-UP)”으로 회자된다.

첫째, 「Clean Up」

나이 들수록 집과 환경을 모두 깨끗이 해야 한다. 분기별로 주변을 정리 정돈하고, 자신에게 필요없는 물건을 과감히 털어내야 한다. 귀중품이나 패물은 유산으로 남기기보다는 살아생전에 선물로 주는 것이 효과적이고 받는 이의 고마움도 배가 된다.

둘째, 「Dress Up」

항상 용모 단정히 하여 구질구질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젊은 시절에는 아무 옷이나 입어도 괜찮지만 나이가 들면 좋은 옷을 입어도 좀처럼 태가 나지 않는다.

셋째, 「Shut Up」

말하기 보다는 듣기를 많이 하라는 주문이다. 어디서나 꼭 할 말만하라. 말 대신 박수를 많이 쳐주는 것이 환영 받는 비결이다.

넷째, 「Show Up」

회의나 모임에 부지런히 참석하라. 집에만 칩거하며 대외 활동을 기피하면 정신과 육체가 모두 병든다. 동창회나 향우회, 옛 직장 동료모임 등 익숙한 모임 보다는 새로운 사람과 만나는 이색 모임이 더 좋다.

다섯째, 「Cheer Up」

각박한 삶속에 낭만과 취미를 가져라. 부정적인 사고를 버리고 꿈을 꾸고 사랑하자. 감흥과 희망을 가지고 늘 긍정적으로 살면 엔돌핀 호르몬이 솟고 회춘한다. 젊으면서도 곰삭는 지혜의 말에다 독창적인

유머 한 가지를 곁들일 수 있으면 더 바랄 것 없다.

여섯째, 「Pay Up」

돈이든 일이든 자기 몫을 다해야 한다. 지갑은 열수록, 입은 닫을수록 대접을 받는다. 공자(孔子)님은 기소불욕물시어인(己所不欲勿施於人)이라 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미루지 말라는 뜻이다. 제몫을 다하자. 돈 앞에 당당하자. 이제는 돈을 벌 때가 아니라 쓸 때다.

일곱째, 「Give Up」

포기 할 것은 과감하게 포기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제부터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세상만사와 부부, 자식 문제가 어느 날 갑자기 기적처럼 해결 될 리가 없지 않은가? 되지도 않을 일로 속을 끓이느니 차라리 포기하는 것이 심신과 여생을 편하게 한다. 여기에 곁들여 하루 한 가지씩 좋은 일을 하고, 하루 10사람 만나고, 하루 100자씩 쓰고, 하루 1000자를 읽으며, 하루 1만보를 걷는다면 이보다 더 훌륭한 건강 비결이 없다. 이른바 1 · 10 · 100 · 1000 · 10000의 10진 법칙이다.

- 釋奠家族 第4號 중에서 -

효행은 정성으로

대중회 이사 沈晟求

효(孝)자에는 가식이 없다. 오직 순수와 진실이 있을 따름이다.

나는 효자를 보면 우선 안도감을 갖는다. 어떨 때는 위안을 얻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무상과 희한 비애에 잠기기도 한다. 아마도 그것은 철이 들기 전에는 효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관심은 있었지만 생활화하지 못한 데서 오는 만사지탄인가 한다. 이제 와서 '아! 효는 이런 것이구나' 라고 짐작은 하지만 어버이 이미 아니 계시니 또 무슨 소용이 있으랴.

이미 오래된 일이다. 내가 철원 모 기관에서 있을 때, 주말에 목욕을 갔다. 머리를 깎은 모양으로 사병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얼굴에 생긴 모습으로는 누구나 부자간 입을 첫눈에 알 수 있을 정도로 닮은 얼굴이다. 젊은이는 아버지의 손·발가락 사이까지 정성스럽게 씻겨주고 있다. 나는 속으로 '효도하는 한 자식이면 열 자식이 부럽지 않다'는 옛말도 생각하고,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는 말도 그리고, 효 앞에서는 부나 권력이나 권위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겠느냐는 생각에 싸이면서 온 몸에 비누칠을 하다 보니 그들은 보이지 않는다. 이미 끝나고 나간 모양이다.

밖으로 나왔다. 그들은 평상에 앉아 있다. 다시 바라본다. 아버지는 맹인이다. 아들은 아버지의 손·발톱을 역시 정성스럽게 다듬어 주고 아버지는 눈을 지그시 감고 아주 편안한 만족감이 은은하게 넘친다. 그러면서도 그들 부자는 말이 없다. 아버지가 맹인이면서 듣지 못하는 장애까지 겪어왔는지 그것은 알 길이 없다. 옷장의 옷을 꺼내어 아버지에게 입혀 드린다. 그리고 자신도 옷을 입는다. 두 부자의 옷은 짙은 밤색 세무 잠바다. 아마도 아들은 똑같은 것을 사서 부자가 입을 것으로 추측이 된다. 그리고 그 젊은이는 아버지에게 신발까지 신겨가지고 손을 잡고 문을 나선다. 나는 그 정경이 하도 성스러워 목이 메일듯했다. '천륜은 저런 것 이로우나' 얼마나 아름다운 "부위자강"의 실현인가 다시 생각하여도 그들은 인륜의 진수를 구현하여 살아가는 부자였다는 기억으로 남는다.

다음은 내가 서울 봉천동에 살고 있을 때 보았던, 현재의 기억이다. 역시 주말에 목욕탕에서의 일이다. 대학생으로 짐작이

되는 아들이 나이를 집착하기 어려울 정도의 아버지와 함께 들어온다. 아버지는 보행이 매우 불편할 뿐 아니라 수척한 중환자의 모습이 확연하다. 잠옷차림 그대로다. 그들은 구내 이발소로 먼저 들린다.

아들은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의자에 앉히고 아버지가 이발을 다 할 때까지 이발사와 함께 주위를 따라 돌면서 아버지의 머리 모양을 이발사에게 알려주곤 한다. 그 젊은이는 아버지의 이발이 끝나고 차례로 옷을 벗겨 챙기고는 아버지의 불편을 부축하면서 탕으로 들어선다. 아들은 탕에 손을 넣어 물에 온도까지 측정하고야 아버지와 탕으로 들어선다.

나는 생각했다. '아! 아직도 효자에게는 한국적인 효의 윤리가 끊어지지 않았구나' 하는 안도를 느꼈다. 효란 제 부모 공경하고 칭찬받는 덕목으로 변함이 없는 것이다. 효란 한계가 없는 것이기에 실천도 어려운 것이지만, 우리 생활 주변에서 흔하게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 사소한 것 일지라도 자신의 수고를 아끼지 않음으로써 부모님께는 만족감을 드릴 수 있는, 지고지순의 것이라는 것을 새롭게 느꼈다.

세 번째의 사례가 된다. 현재도 나와 친분이 있는 심문의 형제 항렬인 분이다. 지나치게 착하기만 한 분이다. 중년 이후까지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자수성가로 남이 부러워할 정도로 치재에도 성공한 분이다. 그런데 뜻밖에 실수 아니 불운으로 사기꾼 울가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꼬리가 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바람에 경제적으로도 아파트 두어 채 정도의 손실을 본 듯하다. 영원한 비밀이 있을까. 이 사실을 부인과 자녀들도 알게 된 다음의 이야기다. 아들 한 분은 요식업을 경영하고 또 둘째는 부인과 함께 공직에 있다가 식품 중간 도매상으로 전업을 했다. 평소에도 과묵하기만 했던 분이 띄엄띄엄 내게 들려준 내용이다.

첫째로 부인이 그 사실을 안 이후 별다른 이야기는 없지만, '어떻게 번 돈이냐'며 눈물로 나날을 보내는 모습은 차마 볼 수 없다며, 2~3년 전부터 자살을 결심하고 장소를 물색하기 위해 차를 몰고 별의별 생각을 다 했다고 한다. 사기환을 유인해 태우고 강이나 저수지, 바다로 돌진할 마음을 굳혔을 때 그대로 실행하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된다고 한다. 아들과 며느리들은 효자 효부로 직장에서도 칭송을 받는 부부이다. 애비가 한 일이라 말은 못하고 오히려 '부모님 덕택에 고생 없이 성장했고, 모두 식생활 걱정하지 않게 해주셨으니,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라고 위로하는 말을 들이니 더욱 체면이 없으며 해식은 웃음을 띠는 노안을 보며 나도 할 말을 잊었다.

이와 같은 고민을 그분은 3~4년 동안이나 어떻게 가슴에 담아두고 지냈을까. 그분의 이야기도 나의 상상도 표현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어질고 착한 부인과 아버지의 실수에 대한 질책도 원망도 없는 효자 효부가 있다면 아파트 열채가 아까우랴!

다음 이야기는 춘천에서 사우나를 갔을 때 보았던 일이다. 연말이었다. 탈의장에는 사람들이 평소보다 몇 배나 많다. 역시 부자의 거동이다. 몸매가 호리호리한 40대의 아들과 고희도 족히 넘어 보이는 老來의 아버지다. 이분도 보행이 불편하여 한쪽 발은 주춤주춤 끌다시피 하는 걸음걸이다. 사우나가 끝나고 옷장 앞에서 옷장의 열쇠를 어떻게 하였는지 기억을 못하는 모양이다. 이 분은 언어 장애도 있는 분이다. 이 사우나의 구조는 신발장 열쇠를 맡기고 다시 옷장 열쇠를 받아가지고 들어가고 나올 때는 역순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이분은 옷장열쇠를 어떻게 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모양이다. 불분명한 언어로 종업원에게 무어라고 했지만 그들이 그분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자 아들이 왔다. 자신은 이미 옷을 다 입고 나갈 차례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이다. 아버지 곁으로 온 아들은 '열쇠, 생각해 봐' 서슴없는 반말이다. 그것도 응석이 아니고 천덕꾸러기로 여기는 어투다. '이제 죽을 때도 되었는데' 하는 속셈이 여실하다. 천덕꾸러기 늙은이의 냄새나 찢으라고 데리고 온 모양이다. 하기가 욕설도 서슴없고, 제 애비 목을 따는 학자도 있었고, 시체에 불을 지른 아들도 있는 세상이니 무어라 할까만, 이들의 버금가는 자식도 다행이라고 여겨야 할는지.

중국 춘추시대의 노래자나 왕상(王祥), 맹종(孟宗)과 같은 효자는 기대할 수 없는 시대라고 하더라도 스스로 뿌리 없는 나무가 되어가는 모습은 보기에 안스럽기 그지없다. 끝으로 효심은 효에 관한 마음을, 孝誠은 정성을, 孝道는 방법을 孝行은 실행을 의미하는 개념의 차이도 생각해 볼

沈영강 심면선



필요가 있다. 마음 → 정성 → 방법 → 실천. 이 네 가지를 갖추지 못한 '효는 우선하거나, 임시방편이거나, 부모님 보다 남의 눈을 의식한 행위에 불과할 뿐 '효는 백행지본'이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한 영원성은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효라는 것은 살아계신 부모님을 위시하여 현조까지 무한한 책임이 그 후손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나는 주제넘게 심문(沈門)의 후예들에게 간곡히 당부하고 싶어집니다. 어느 성씨보다도 자고로 효행 열녀로 빛나는 문벌(門閥)이기에 역사가 흐르는 방향으로 적응하되, 효행만은 지켜서 모범적인 가벌을 더욱 빛낼 각자의 책무에 충실할 것을 부탁하고자 합니다. 가공적인 인물이기는 하지만 심정이 같이 영원한 효의 표상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예절(禮節) 한 토막 ④

■ 부부간의 칭호는 거처칭(居處稱)을 많이 쓴다.

☞ 저는 1992년에 국립국어 연구원에서 펴낸 '표준화법 해설'에서 호칭어와 지칭어를 보고 너무 복잡하여 난해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쓴 '실천 생활예절'에서 언어예절의 칭호를 보고 정리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호칭과 지칭을 합하여 칭호라 하고, 칭호는 대인칭과 거처칭으로 나누어 진다"면서 제시한 칭호의 구성표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부부간의 칭호가 정리되지 못해 한때 남편을 '아빠'라고 하더니 최근에는 '오빠'라고 합니다. 아빠와 오빠를 포함하여 부부칭호의 적절한 것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간 실천예절을 많은 사람이 보기 때문에 사회에 기여하는 의미로 질문 합니다.

☞ 감사합니다. 월간 실천예절은 전국의 4,000개 기관에 매월 무가로 우송 배포하기 때문에 그 조직원 등 많은

사람이 보는 잡지입니다. 자금관계로 지면이 적어(20쪽) 내용이 풍부하지는 못합니다. 마침 귀하의 질문을 계기로 부부간의 칭호에 대하여 말씀 하였습니다. 먼저 칭호의 구성관계를 말 하겠습니다. 흔히 호칭(呼稱)이라고만 말하는데 호칭은 부르는 말로서 누군가를 가리키는 지칭(指稱)이 빠져서 안 됩니다. 그래서 호칭과 지칭이라고 하면 말이 길어져서 어색합니다. 그러므로 호칭과 지칭 두 가지를 아우르는 말로 칭호(稱號)라고 하면 편리합니다. 그 칭호를 검토해보면 두 가지의 형태로 갈라집니다. 즉 사람을 말하는 대인칭(對人稱)과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말하는 거처칭(居處稱)입니다. 임금을 상감(上監)마마, 왕비를 왕후(王后)마마, 세자를 세자저(世子)하라고 하면 대인칭이고, 임금을 대전(大殿)마마, 왕비를 중전(中殿)마마, 세자를 동궁(東宮)저하라고 하면 거처칭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 ◎ 칭호(稱號)
- 호칭(呼稱) : 부르는 말
- 지칭(指稱) : 가리키는 말
- 대인칭(對人稱) : 사람을 말한다)

• 거처칭(居處稱) : 있는 곳을 말한다.

거처칭은 궁중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일반사회나 가정에서도 사용합니다. 특히 상대방을 존중 할 수록 대인칭 보다는 거처칭을 많이 사용합니다. 집안의 제일 높은 남자 어른을 '큰 사람'이라 하고, 제일 높은 여자어른을 '대방마님'이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남편을 아빠, 오빠는 안 돼 : 아주 잘못 된 칭호입니다. 자기의 아이에게 아이의 아버지를 말하려면 아이가 부르는 칭호로 '아빠'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남편을 '아빠'라 하는 것은 아주 잘못입니다. 그것이 여러 해 전에 방승관계자들의 노력으로 안 쓰게 되더니 이제 '오빠'라고 합니다. 오빠는 손아래 시누이에게 그의 오빠인 자기 남편을 '오빠'라고 가리킬 수는 있으나 남편을 '오빠'라고 부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승극 등 작품속에서도 남편을 '오빠'라고 하니 명색이 작가라고 하는 문인들이 우리 언어문화를 순화하기는 커녕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심한 일입니다. 설사 시중에서 그렇게 부르더라도 작품 속에서는 바르게 부르는 풍토가 아쉽습니다. 대중회 이사 沈洪燮

6世祖 良惠公 (휘:石雋) 秋享奉行

10월 27일(음: 9월 20일)



良惠公 配位 14世祖 滄州公
 初獻: 晶求 贊求 榮燮
 亞獻: 相大 洪燮 仁燮
 終獻: 愚寬 英輔 愚成
 執禮: 載求 大祝: 相華 執事: 鍾赫 昌輔 載澈
 ▶ 祭需獻誠金
 內禁衛公宗會 200,000 滄州公 後孫 500,000

8世祖 舍人公 (휘:順門) 秋享奉行

10월 26일(음 9월 19일)



舍人公 忠惠公 翼孝公
 初獻: 昌燮 光澤 胤燮
 亞獻: 相烈 相汶 康燮
 終獻: 萬澤 鍾赫 元輔
 執禮: 容圭 大祝: 良燮 執事: 載澈 載緒 三圭
 ▶ 祭需獻誠金
 信川公宗會 200,000 僉正公宗會 500,000
 信川公(春川宗會) 100,000 光澤(安城) 100,000
 曉窓公宗會 1,600,000

14世祖 晚沙公 (휘:之源) 秋享奉行

11월 1일(음 9월 25일)



肅川公 監役公 晚沙公
 初獻: 晶求 贊求 晶求
 亞獻: 鍾赫 重植 潤求
 終獻: 大植 昌輔 求亨
 執禮: 載求 大祝: 相華 執事: 鍾赫 昌輔
 ▶ 祭需獻誠金
 長植 鮮光會長 300,000 贊求 副會長 100,000

7世祖 忘世亭公 (휘:濬) 秋享奉行

10월 30일(음 9월 23일)



忘世亭公 配位 節度使公 合設
 初獻: 晶求 贊求 鍾赫 鍾赫
 亞獻: 相大 求亨 洪燮 春植
 終獻: 相植 仁輔 愚夏 愚夏
 執禮: 載求 大祝: 相華 執事: 鍾赫 載緒 昌輔
 ▶ 祭需獻誠金
 贊求副會長 200,000 大宗會(青城尉公) 300,000

9世祖 曉窓公 (휘:逢源) 秋享奉行

11월 6일(음 10월 1일)



曉窓公 正字公 一松相公 僉正公
 初獻: 鴻圭 興燮 鴻圭 相昊
 亞獻: 承喜 鴻來 成來 百燮
 終獻: 承寬 元燮 慶燮 胤燮
 執禮: 洪燮 大祝: 載求 載順
 執事: 憲圭 星來 載洪 恒來

恭肅公 養父 康主簿公 秋享奉行

10월 28일(음 9월 21일)



康主簿公 配位
 初獻: 沈相德(안효공종회 부회장)
 亞獻: 康鍾鎮 沈宇正
 終獻: 李載和 沈成來
 執禮: 沈洪燮 大祝: 沈容圭
 執事: 三圭 載澈 載緒
 ▶ 祭需獻誠金
 安孝公宗會 300,000 金堂山宗會 光州 100,000
 淸州宗會 100,000 德水李氏玉山宗會中 100,000
 信川康氏門中 100,000 信川康氏 槐谷門中 100,000

7世祖 內資寺判官公 (휘:浚) 秋享奉行

11월 7일(음 10월 첫 일요일)



初獻: 相烈 亞獻: 洪燮 終獻: 載緒
 執禮: 昌燮 大祝: 良燮 執事: 奉燮 大燮
 • 八世祖 敦寧府都正公 諱: 順道
 • 九世祖 贈戶曹參議公 諱: 巨源
 • 十世祖 贈 吏曹參判公 諱: 鏞
 • 十一世祖 督戰督運使公 諱: 宗明

10世祖 谷山公 (휘:鎰) 秋享奉行

11월 20일(음 10월 15일)



初獻: 堯澤 亞獻: 相振 終獻: 榮燮
 執禮: 載昌 大祝: 載昌

9世祖 左議政公 (휘:通源) 秋享奉行

11월 15일(음 10월 10일)



初獻: 宜善 亞獻: 載緒 終獻: 潤澤
 執禮: 洪燮 大祝: 雲澤 執事: 振澤 寬澤

11世祖 信川公 (휘:孝謙) 秋享奉行

11월 14일(음 10월 9일)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석정리 (家族墓)
 初獻: 元輔 亞獻: 載緒 終獻: 洪燮 執禮: 相弘

계영배의 교훈



심갑보 부회장

계영배라는 잔은 잔 밑에 구멍이 뚫려있습니다. 술을 부으면 밑으로 새는 게 당연할 텐데 신기하게도 술이 찰랑찰랑 잔속에 머물습니다. 그런데 잔의 70%이상 술을 채우면 잔속에 있던 술이 모두 다 밑으로 흘러내립니다. 과음을 경계하기 위해 만들어 절주배라고도 하고 과욕을 다스리는 상징으로 자주 인용되기도 하지요.

순간의 판단착오나 자만은 곧잘 과욕을 부릅니다. 호경기일수록 과유불급의 지혜가 절실한 것은 술병에 더 부을 술이 있기 때문일 테니까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하듯 잘 풀릴 때 스스로 경계하고 주위를 돌아볼 필요를 계영배(戒盈杯)를 통해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沈甲輔의 유리병 편지” 中에서

지방순회 뿌리교육 실시

제4회 “지방순회 뿌리교육”을 2010년 10월 9일(토) 울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 하였는 바, 230명이 참석하여 교육장은 초만원을 이루었고 참석자 모두가 진지하게 강의를 경청하였다. 대종회에서는 총무이사(총혁)와 문화이사(재열)가 대종회연혁, 현조사적, 홈페이지에 관한 강의를 하였으며, 대구에 사시는 구석(龜錫)씨는 자원하여 ‘충효사상’에 대하여 강의를 해주셨다. 울산 입향선조님의 사적에 관한 내금위총회장(應輔)의 강의에 이어 관선과 민선을 합쳐 7년간 울산시장을 역임하셨으며 현재 대종회 부회장으로 계신 완구(完求) 전 시장님께서 특강을 해주셨는데 울산을 사랑하는 마음과 자

부심이 가득함을 느꼈으며, 울산의 자랑거리인 태화강과 세계적 문화유산인 ‘반구대암각화 보존과 관광벨트 조성 필요성’에 대한 강의가 특히 인상 깊었다. 내금위총회는 중회경비에서 뷔페로 점심식사를 준비하고 기념타올도 제작 배부하였으며, 청년회 명보회장과 회원들은 술선수범하여 식사시간에 혼잡한 상황을 정리하고 교육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지방순회 뿌리교육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신 내금위총회와 청년회 임원들 그리고 멀리 부산, 대구, 청주, 영동 등 타지역에서 교육에 참석해 주신 일가분들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康主簿公 시향 참여기

금일(음 : 9. 21)은 恭肅公(諱 濬) 養父이신 康主簿公의 추향일이다. 아침 일찍 서둘러 전날에 준비한 제수를 차에 싣고 동석할 宗人을 만나기로 한 장소에 도착하니, 벌써 동행할 분들이 나와 기다리고 있었다.

준비해 온 커피를 한잔하고, 7시에 출발하여 중부영동 내륙고속도로를 갈아타고 괴산휴게소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출발하여 10시 10분에 도착하니 여러 문중에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앞쪽을 바라보니 시야가 넓게 보이며, 화트인 느낌이 아주 좋았다.

작년 추향 때까지 시묘암(侍墓岩)을 가리고 있던 폐가 한 채가 철거되었기 때문이다. 이미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마음이 후련할 수가 없었으며, 이 모든 것은 심씨문중 신천강씨문중 덕수이씨문중 선산종회 고아읍장과 예강리 주민 등이 모두 한마음으로 3천5백만원을 마련하여 廢家 철거에 협조 노력하여 주신 덕택이다.

문화재지정을 위하여 시묘암 주변의 정화사업에 모두가 협조를 하여주시어 큰 힘이 되었음을 감사드리며 이러한 결과는 특히 선산종회 宇正 회장을 비롯한 여러 문중의 노력 끝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은 작년과는 다르게 제향을 모시기에는 온화한 날씨라고 모두가 말 하였다. 금년 제향에는 82명의 최대 參班員이 참석하여 11시부터 추향제를 시작하였다. 초헌관은 안효공종회 相德 부회장, 아헌관은 信川康氏문중, 종헌관은 德水李氏 문중에서 헌작하였다. 대종회와 원주·대구·대전·光州·인천·영동·구미·선산·충주·김포 등지에서 참석

하여 다함께 제향을 봉행하였다. 음복을 하고나서 沈永澤會長님의 인사말씀이 있었으며, 선산종회 宇正회장님의 말씀이 금년에는 구미시의 예산이 여의치 않았으나 명년에는 예산이 확보될 것이라고 하며, 시묘암과 그 주변을 깨끗하게 환경을 개선하고 정화하여 문화재로 등록할 것이라고 하였다.

안내자를 따라 예약된 식당(장터목)에 들어가니 150명을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방이었다. 점심식사를 하면서 정담을 나누며 우의를 다졌고 이 모든 것이 주부공의 음덕임을 기리며 오늘의 행사를 끝냈다.

康主簿公은 무술옥사가 일어났을 때 유모의 등에 업혀 피난 온 어린아이를 아들로 삼고 정성을 다하여 양육하고, 가르쳐 후일에 영상의 자리까지 오르게 해주신 분이다.

강주부공은 친자가 없어 공숙공과 그 후손이 봉사해 왔으나 9세조 진사공(諱 興源)이 후손이 없어 사위이신 황고산(黃孤山)이 봉사하게 되었고, 다시 그 분의 사위인 德水李氏 문중에서 그 후손들에 의하여 강주부공과 황고산공 두 분의 제향을 500여년간 봉사해 오다가 100여년전부터 강주부공 제향을 겸사하게 이름에 따라 부득이 청송심씨 문중에서 제향을 다시 봉행해 오고 있다.

공숙공께서 養父母의 3년 상을 봉행하며 시묘살이를 하신 아름다운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면 전국적으로 충효를 실천하는 교육의 장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묘암과 강주부공산소의 정화사업을 추진하기위하여 공숙공 후손을 대상으로 5천만원을 목표로 모금활동을 하고 있는바 각 宗會와 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봉향회 총무 심인보

慶南의 杜山亭



두산정과 안분사

에 관계없이 성의대로 대대적인 모금운동을 하여, 지후공 할아버지께서 만년에 거주하시던 석탑촌에 유허비를 건립하고, 경남지역 후손들이 모두가 모이기가 용이한 합천삼가에 재실 杜山亭(杜山亭)을 건립하고 안분사(安分祠)

를 지어 매년 음 3월 3일 향사를 봉행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모금운동으로 모인 돈으로 재실과 사당을 건립하고 남은 돈으로 약간의 위토답을 마련하여 그 수곡과, 제사에 참여한 제관들이 성의껏 제수 비를 모아 근근이 제향은 이어오고 있었으나 세월이 흐를수록 재실 杜山亭이 낡아, 비가 새고 부대시설이 허물어져 부분적으로 수리를 해도 허물어질 지경에 이르렀었다. 근래에는 재실이 완전히 퇴락하여 엮어질 지경에 이르렀는데, 또 다시 모금운동으로 총당하기에는 엄두가 나지 않아 발만 구르고 있던 차에, 마침 평소 송조돈족 정신이 투철한 義祚군수께서 군수의 재직을 하는 동안 조상의 일에 팔을 걷어 부치고 각계 요로에 힘을 써, 경상남도 지정문화재로 등록신청하여, 갖은 어려움 끝에 杜山亭과 祠宇 安分祠는 문화재로 지정 되었으며 대대적인 수리를 하여 새롭게 단장을 마쳤다. 그러나 새로 중건을 마치고 보니, 모금으로 마

경남의 산청은 청송심씨 제2세조이신 합문지후공(諱 : 淵)께서 계시던 때부터 뜻 깊은 곳이다. 지후공께서는 만년에 山陰(현 山淸)현감을 역임하시고, 퇴임 후에는 산청 땅 석담촌 자연동(현 생초면)에 머무시며, 명예와 부귀를 버리고 王山에 올라 고려의 안위와 연군의 정을 달래시며 여성을 마치시고 산청 땅에 묻히셨다.

그 후 1377년(洪武10年)에 손자 되시는 諱 德符, 諱 元符 형제분께서 아버지 靑華府院君의 遺志에 따라 전국 8명당 중의 하나라는 전북 익산 남당산으로 이장하여 모셨다. 그러다가 한참의 세월이 흐른 뒤, 경남지역의 20여개 문중 대표들이 모여 합문지후공의 유지가 깊은 이곳을 그냥 방치할 수 없고, 할아버지의 산소가 멀리 익산에 있어 제향에 참석하고 싶어도 교통이 불편하여 어려움이 많아 재실을 마련하기로 의논이 모아졌다.

구전되어 오는 얘기에는 약 20여개 경남 지역 문중에서 십시일반으로 금액의 고풍

련했던 재실과 위토답이 약간 있었으나 퇴락한 재실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죽이나, 1년에 한번 모시는 제수비와 그에 따르는 경비를 충당할 방법이 없는 실정에 이르렀다.

지금까지는 뜻있는 종인들의 헌성금과 호주머니를 열어 근근이 어렵게 이어왔으나, 그것도 한 해 두 해이지 해마다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하여, 금년(2010년) 3월 제향 후, 또 다시 제수비 모금운동을 해 보자고 결의하고 10만원 이상 헌성자는 그 이름을 돌에 새겨서 영구히 보존토록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러니 대종회를 비롯한 합문지후공 후손, 범 沈門의 정성어린 협조를 바라고 있다. 선조의 피를 이어받아 오늘을 살아가는 후손들이 선조를 섬기고 숭양하는 것은 후손의 도리가 아니겠는가?

더러는 합열 남당산에서 잘 모시고 있기에 이중으로 경남에서 제향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분도 있지만, 경남 산청은 제2세조 할아버지께서 근무하신 곳이고, 만년에 거주하시다가 산청 땅에 장례 모시고 그곳에 유허비가 있기에 그 유허지를 보존하고 기리기 위해 경남의 후손들이 자발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어렵게 모금운동을 하여 마련한 재실과 사당을 우리 세대에 와서 폐한다면 어찌 자손의 도리를 다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장차 조상을 대할 면목이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 경남지역에서 하는 제수비 마련을 위한 모금운동에 전국의 합문지후공 후손들께서는 선조를 섬기는 정성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다. 그리고 대종회 에서도 어떤 방법으로서든 지 1년에 한번 모시는 제향을 이어 갈 수 있도록 눈을 돌려 선처하여 주시옵기를 간

절히 양망하며 일가 여러분들이 베풀어주시는 정성은 돌에 새겨 자손만대로 영구히 보존토록 할 계획이다.

2010년 11월10일

杜山亭 保存會
위원장 沈義祚(합천) 011-887-4114
부위원장 沈東燮(진주) 010-3152-2758
부위원장 沈洙鍾(부산) 011-889-8557
총 무 沈在華(진주) 010-6400-6218

■ 헌성금계좌번호 :
농협 356-0301-8020-33 예금주 심재화

■ 헌성자 명단 (2010. 11. 1 현재)

도총제공종회(강원 원주)	3,000,000원
서울 岳隱會	500,000원
심의락 (대종회명예회장)	150,000원
심민섭 (원주 도총제 종회장)	200,000원
심의철 (악은종회장)	200,000원
심상철 (현령공 종회장)	200,000원
심상화 (경기 용인)	200,000원
심상두 (마산 내서)	150,000원
심상학 (청송)	100,000원
심성보 (서울)	100,000원
심우영 (서울)	100,000원
심의용 (서울)	100,000원
심영섭 (청송)	100,000원
심재희 (영주)	100,000원
심상갑 (마산)	100,000원
심춘택 (마산)	100,000원
심재화 (진주)	100,000원
심영보 (진주)	100,000원
심상돌 (마산)	100,000원
심상동 (마산)	100,000원
심상숙 (마산)	100,000원
심동섭 (진주)	100,000원
심재무 (창원)	100,000원
심장보 (서울)	50,000원
심진섭 (산청)	300,000원
경남 의령문중	1,000,000원
경남 산청 묵곡문중	1,000,000원
합 계	8,450,000원

人事

심헌 : 국민은행 (울산 남구) 옥동 지점장
 금섭 : (승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관리원
 은구 : (승진)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이사
 지영 : (승진) 국토해양부 국제항공과 서기관
 우섭 : 대한지적공사 지적연수원 인재개발팀장
 홍섭 : 우리투자증권 호남 상무보(본부장)
 재춘 : 한국도로공사 서서울영업소장

任 員 會 費

斗燮 會長	3,000,000		
甲輔 副會長	300,000		
護雄	2010	50,000	대구
春輔	2010	50,000	마포
仲根	2010~2011	100,000	아산
元植	2010	50,000	영등포
容奭	2009~2010	100,000	예천
相鴻	2010	50,000	삼척
甲澤	2010	50,000	부여
安輔	2010	50,000	전주
永澤	2009	50,000	일산
鎭植	2010	50,000	光州
載令	2010	50,000	당진
載善	2010~2011	100,000	공주
相勳	2010	50,000	김포
秀永	2009~2010	100,000	전주
斗燮	2009~2010	100,000	전주
相昊	2010	50,000	청주
相華	2010	50,000	일산
載德	2009~2010	100,000	부산
鍾燮	2010	50,000	제천
載榮	2009~2010	100,000	부산
萬仁	08.09.2010	150,000	부산
東出	2010	50,000	삼척

宗 報 贊 助

廷江派 馬山宗中	100,000		
護雄	30,000		대구
春輔	100,000		마포
相弘	50,000		김포
彦村	100,000		수원
상근	30,000		옥수동
성진	50,000		서산
세용	50,000		소사동
재운	50,000		무안
瑾燮	100,000		방배동
斗植	100,000		光州
胤燮	50,000		김포
호섭	50,000		光州
成來	100,000		충주
상운	30,000		삼척

恭肅公(諱:滄)養父 康主簿公 奉享會

- 獻 誠 金 -

▶ 派 宗 會

安孝公宗會(휘 溫)	13,000,000
內資寺判官公派宗會(휘 浚)	2,000,000
夷敬公宗會(휘 瀚)	1,000,000
修撰公宗會(諱 達源)	1,000,000
將仕郎公宗會(김포)	1,000,000
무숙공파종회(김포)	1,000,000
司禦公派宗會(휘 友寬)	00,000
曉窓公派宗會(휘 逢源)	3,000,000
忠翼公派宗會(휘 忠謙)	1,500,000
僉正公派宗會(김포)	1,000,000
龜尾宗親會	300,000

▶ 個 人

永澤 奉享會 會長	7,000,000
相八(光州 金堂山宗會 會長)	10,000,000
斗燮(大宗會 會長)	10,000,000
相泳(益山宗會 會長)	200,000
在安(大宗會 理事)	100,000
彦村(수원)	100,000
相厚(大宗會 理事)	50,000
相直(인천)	50,000
載勳(김포)	500,000
載冕(이경공파종회 재무)	100,000
良燮(김포)	100,000
載德(응암동)	50,000
載烈(문화이사)	100,000
載緒(문화부장)	100,000
種福(봉향회 총무)	200,000

2010년 11월 17일 現在 合計 53,750,000

바로잡습니다

- ▶ 종보84호
 - 84호 2면「畫仙」하단 끝에서 5번째 줄, 3면 1단 4번째 줄 慕筆思想을 慕華思想으로 訂正합니다.
- ▶ 종보85호
 - 8면 임원회비
載警 50,000 안동을 인천으로
載玉 50,000 춘천을 안동으로
 - 8면 종보찬조
상완 100,000 건대교수를 단국대교수로 訂正합니다.

訃

告

沈璋燮(大宗會 指導委員)님께서 2010년 10월 11일 宿患으로 별세하셨습니다.
 (장지: 대전현충원 將軍墓域)
 딸: 秀娟 사위: 李在現

沈相鶴(水運判官公派)님께서 2010년 9월 28일 宿患으로 별세하셨습니다.
 아들: 丞燮 景燮
 딸: 熙燮 旻燮 美燮

沈中鎭(大宗會 理事)님께서 2010년 10월 18일 별세하셨습니다.
 아들: 潤化 潤鐵
 딸: 潤愛 潤實

沈相汶(大宗會 理事)님의 아버님(鳳澤 101세)께서 2010년 11월 18일 별세하셨습니다.
 아들: 相眞 相汶 相吉 相林 相雲
 딸: 일순(金好俊)

5처산소 유사 연락처

세	관 직	소재	유사	전화 번호
시 조	문림랑공	청 송	能 光	010-9236-2331
			琬澤	011-9374-4166
2 세조	합문지후공	함 열		
3 세조	청화부원군	안 성	光澤	011-732-5768
4 세조	청성백	연 천	良燮	011-728-2104
4세조비	청주송씨	청 주	成輔	019-480-9994

靑 松	청송심씨 찬경회관	054-874-3400
	館長 載洪	018-505-7611
	악은공종회 총무 相七	010-9776-7170
淸 州	청 주 회 관	043-286-7857
大 田	뿌리공원 안내 玄根	011-429-6760

송금안내

任員會費·贊助金·宗報贊助를 송금하실 분은 아래 구좌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 협
084-01-193626 (청송심씨대중회)

인터넷 족보 수단금 송금안내

· 농 협
301-0019-5484-91 (청송심씨대중회)

수단(收單)은 우편, 팩스(2269-7755) 또는 이메일: cshimssi@kornet.net로 보내주시고 수단금은 상기 계좌로 입금바랍니다.

문의전화: (02)2267-7857

理監總副會顧
事事務長長問
... ..
載天(鎡) 明春(鎡) 峯澤(鎡) 炯甲(鎡) 種澤(鎡) 吉燮(鎡) 達燮(鎡) 相勳
南燮(鎡) 洞燮(鎡) 周燮(鎡) 昌燮(鎡) 昌燮(鎡) 仲根(鎡)
昌燮(鎡) 玄根(鎡) 左輔(鎡)

修撰公派宗會任員名單

理文財總監 副會顧
化務務 會
理理理事事 長長問
... ..
재부(善澤) 龍輔(尙輔) 英珉(용보) 載榮(萬仁) 相均(斗燮)
천오(상학) 우섭(虎燮) 三輔(술진) 상집(상집) 仁輔(仁輔) 敬道(敬道)
漢求(泰燮) 載元(龍植) 수진(龍植) 敬道(敬道)

釜山宗會任員名單